



“여수시 관광 발전 위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해야”

시민·전문가 등 150여 명 참석 포럼 개최



여수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는 지난 3일 디오션호텔에서 '섬,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시민, 관광 산업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예상 인원 100명을 훌쩍 뛰어넘어 여수관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웰니스(Wellness)의 개념과 사례를 배우고 지역 관광에 접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웰니스 관광의 권위자인 경남대 김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세계 웰니스협회는 2020년 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약 864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여수가 웰니스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담대 정희선 교수가 국내의 웰니스 사례를 발표하며 "마리나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용 교수, 지역사학연구소 김병호 이사장, 정태권 전남섬발전자문위원, 마이스협회 이창제 사무국장, 여수시 김학섭 관광과장은 바다와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과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지역민 참여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2019 테마여행 10선 6권역 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등 4개 지자체에서 지역포럼을 개최하고 6월 말 종합포럼을 진행한다.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권역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4개 지자체는 8권역 '남도바다길'로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웰니스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 공감대도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17일부터 운영

완도대성병원 신축·산모돌봄센터 등 편의시설 갖춰

완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완도대성병원에 신축되어 오는 11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으며, 17일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전남도와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이 16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2층에 220명 규모로 장애인 산모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산모돌봄센터 등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후 안락한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췄다.

신생아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모자동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신생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에어워셔,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등을 갖추고 입소하는 신생아에 대해 24시간 집중 돌봄을 실시한다.

이울러 종사자 예방 접종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정기적 회진 실시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산모돌봄센터 설치·운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여 평 규모의 안락한 공간을 조리원 1층에 마련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요가, 산후관리교육, 웃음치료 등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

해 저렴하며, 철저한 감염 관리로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산모, 귀농·어·귀촌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70%를 전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하게 된다.

김선중 완도군보건소장은 "오는 6월 11일 개원식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 사회 공동 책임으로 모두가 함께 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접수와 문의는 방문하거나 예약 접수실로 전화(061-550-1226)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화순군, ‘울 엄마가 보낸 영상 편지’ 교육 개강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일환...스마트폰 이용한 미디어 교육



화순군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직접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화순군은 4일 나드리 노인복지관에서 '울 엄마가 보낸 영상 편지' 교육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제목과 별개로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첫 수업은 영상 제작의 도구가 될 스마트폰과 거리감을 좁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안내하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메모하고 손을 들어 질문하는 등 수업 첫날 교실 안은 새로운 배움에 관한 열기로 가득했다. 직접 만든 영상 편지로 자식들을 놀라게 한다는 기분 좋은 상상이 어르신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했다.

수업은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다섯 번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기본 능력을 점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제작한 영상을 마지막 수업에서 전송하는 것으로 교육은 마무리된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화순 너

랑 나랑 프로젝트'도 개강했다. 포토 에세이를 만들고 문화소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교육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미디어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 다문화 가정, 농촌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위탁해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 마을 역사 기록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을 대상으로 농작물 홍보 영상 제작과 SNS 활용 방법 교육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무안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을방문 치매진단검사 ‘호응’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사로 주민 불편 해소 앞장

무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국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로 1차 선별검사, 치매진단을 위한 2차 정밀검사와 3차 감별검사로 진행된다.

이중, 1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발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

나,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치매센터나 협약병원까지 방문이 힘들어 검사 일정이 늦어져 치매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 검진팀과 협약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무안군공립노인요양병원, 김용석)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진단검사와 치매상담을 실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진 비용은 1차 선별검사와 2차 진단검사는 전액 무료이고, 3차 감별검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치매의 중증화로의 진행 속도를 늦춰 환자와 가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안군은 치매조기검진을 1,800여명 실시하여 치매환자 88명 발견하였고, 이중 보살핌 대상인 28명에 대하여 맞춤형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치매 치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영농철 주민 건강 챙기기 총력

강진군보건소가 바쁜 농번기철 폭염 등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쁜 농번기철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주민들을 위하여 25개소 경로당(마을회관)을 2주회 순회하고, 방문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뿐만 아니라 영농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른 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인명 피해 예방과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따른 혈압, 혈당체크, 투약지도, 건강 상담 및 건강생활실천요령, 국가 암 검진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쁜 농번기철에 폭염 및 건강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민행동요령 리플릿 배부와 함께 부채, 미니그림자 등 선물했다.

바쁜 일 탓에 몸 관리를 못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더운 날씨에 일하는 곳까지 나와서 건강 상담을 해주니 안심도 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바쁜 농번기철 자칫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에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군, 재활장애인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건강증진실에서 뇌병변·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순환식 그룹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제 순환식 운동은 이번 운동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순환하며 운동을 수행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10명씩 그룹을 지어 운동이 진행되며, 그룹운동과 과제수행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